'문화' 기초체력 증진 최선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져야 합니다. 특히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임기동안 문화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7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기선의원(민주당)은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문화'에 있는 만큼 지식산업의 근간인 출판인쇄 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8월 13일 배기선위원장을 만나 국회차원의 대책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 보았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문화관광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입국을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과 위원장님의 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월드컵이 끝나고 제가 문화관광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세계가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적인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우리 국민의 문화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는 성공할 수 없고 오래가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말합니다.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말을 뒤집어 살펴보면 사회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부의 원천을 자연자원과 제조업 중심에서 부가가치와 지식정보로 일대 혁신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지식과 정보의 결정체입니다.

따라서 미래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가 곧 문화의 시대라는 말은 결코 과장된 수사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경쟁력도 이제 문화의 경쟁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세계화로 보편화된 문화의 홍수속에서 수위를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국의 독특한 문화적 색채를 강화하는 것이 경쟁력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화국가를 표방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불간섭 전폭지원의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과거정권에서 문화와 예술, 심지어는 스포츠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규제하거나 의도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횡행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민의 정부의 불간섭은 문화 각 분야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얼마전 영화배우 문성근씨를 만나서 한국영화가 이제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생각하던 끝에 그가 던진 대답은 '민주화요' 였습니다. 사회 곳곳의 자율과 규제철폐가 얼마나 많은 상상력과 창의력의 발현을 가져왔는지 가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사고를 더 연장시켜보면 월드컵 시즌동안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붉은 악마의 문화도 이러한 해석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입니다. 자유와 책임과 자발성의 문화가 바로 그러한 응집력과 통일성과 그리고 즐거운 참여정신을 만들어낸 근본원인이 아니겠습니까.

민족문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쇄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최근 제정되었습니다. 동 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쇄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시기적으로 매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을 선도한 밑거름이랄 수 있는 출판인쇄산업이고 보면, 이러한 육성진흥책이 일목요연하게 입법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기존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합 정리해서 인쇄업 분야의 자율을 신장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법체계를 마련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는 각종 진흥시책은 물론 국가책임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출판인쇄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큰 틀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가 금속활자 발명국이라는 사실에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인 한글을 창제했고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인쇄종주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유네스코에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고유의 문자를 창안하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한 문화민족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정신을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의 독서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독서 문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적은 영상산업과 인터넷의 보급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매체가 활자문화를 잠식하는 위

◈ 유창준국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는 배위원장.

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대여율이나 인터넷 이용율에 비하면 비교도 안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보다 책을 쉽게 흥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출판인쇄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인쇄출판의 품질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독서 습관의 교육이나 국민 계몽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인 독자들을 더욱 늘리는 길은 질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R&D 육성, 교육체계 조성, 출판인쇄 전문인력의 배양 등 국가차원의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육성책이 뒤따라야 국민들이 더욱 책을 사랑하고 책을 즐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개인적인 사항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모님과의 연애담이 〈서울에비타〉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예술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 청년시절에는 당시 누구나 그렇듯이 민주화 운동에 몸부림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이 주신 인연으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 아내는 잘 나가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꿈꾸던 성악도였습니다. 저는 한낱 보잘 것 없고 쫓기는 신세에 불과한 도망자였죠. 수배중에 숨어든 집 다락방에서 일주일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별로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아닌데 평소 친교가 있던 문화예술인들이 영화로까지 만들어 좀 유명해졌습니다. 제 아내는 저 때문에 음악의 길을 포기하고 평범한 주부가 되어 있지만, 지금도 목회 활동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대학에서 성악 강의도 하면서 못다 이룬 꿈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일까요, 저도 문화 예술인들하고 두루 친교가 생겼고 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역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부천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깨 엎고 나무를 심자는 운동이고 굴뚝에 연기나는 산업대신 문화산업-콘텐츠산업으로 경쟁력을 갖추자는 정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훌륭하고 실력있는 문화예술 인재들을 길러내는 일은 무엇보다 소중한 작업입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예술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경합을 벌였지만 다행스럽고도 감사하게 우리 부천지역에 유치하고 이제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수한 교사와 커리큘럼을 갖추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달성하는데 성원해 주신 부천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쇄출판산업 진흥위한

위원장님의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타이틀이 '배기선의 부천사랑만들기'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천사랑 만들기라는 타이틀은 어쩌면 아직도 지역연고와 출신을 따지는 우리 정치현실에서 부천을 저의 정치적 고향으로 삼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다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사랑과 애정과 열정이 녹아들지 않으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도 없고 전념하며 헌신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부천사랑을 실천하자는 의미로도 이런 구호를 쓰고 있습니다.

자녀 중에 유학을 하고 있는 따님이 있고 늦둥이를 두셨는데 자녀교육을 엄격하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치인 아버지는 모두 0점짜리 가장입니다. 가정을 돌보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공인의 의무와 도리 이전에 포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큰 아이 그리고 50이 다되어 축복처럼 받은 늦둥이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이란 건 늘 어쩌다 한번 얼굴 들여다보면 던지는 선문답이 전부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기 소신을 버리지 말고 자신있고 당당하게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일과 사랑, 인생 중요한 두가지 가치 모두에서 말입니다.

여가활용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여가시간은 별로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만, 시간이 나면 지역을 돌아보며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운동하는 노인들 틈에 끼어서 얘기도 듣고 공원에서 조깅하는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그런 정도입니다.

대담 : 유창준국장
사진 : 이용우기자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 국회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

국회 지원 앞장

약 력

△ 1950년 전남 무안에서 출생(52세)
△ 1977년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징역2년
△ 1980년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창립간사
△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수배
△ 1987년 평화민주당 김대중대통령후보비서
△ 1991년 민주당 김대중 대표최고위원 보좌역
△ 1995년 부천시 원미구(을)지구당 위원장(현)
△ 1995년 제14대 국회의원(전국구)
△ 1998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현)
△ 2000년 국회 법사위원, 예결특위위원
△ 2001년 제16대 국회국방위 간사
△ 2001년 새천년민주당 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 2002년 새천년민주당 기획조정위원장 (현)
△ 2002년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현)